

---

## SeMA

Press Release Ver. 1

2018. 04. 25. 14:30

※ 4월 25일 오후 14:30부터 보도 가능

---

---

서울시립미술관 홍보담당 김채하  
T. 02-2124-8928  
E.mail. chaeha@seoul.go.kr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홍보담당 조우리  
T. 02-2124-8979  
E.mail. wcho@seoulbiennale.com

webhard. <http://sema.webhard.co.kr/>  
ID:semapress PW:sema

---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전시 소개 및 참여자 발표

|      |                                                                   |
|------|-------------------------------------------------------------------|
| 행사명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
| 전시제목 | 좋은 삶 (Eu Zen)                                                     |
| 전시기간 | 2018-09-06 (목) ~ 2018-11-18 (일) 총 74일                             |
| 개막식  | 2018년 09월 05일 (수)                                                 |
| 전시장소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본관 등                                                   |
| 공동기획 | 김남수, 김장언, 임경용, 장다울, 최효준, 홍기빈                                      |
| 주최   | 서울특별시                                                             |
| 주관   | 서울시립미술관                                                           |
| 웹사이트 | <a href="http://mediacityseoul.kr/">http://mediacityseoul.kr/</a> |

###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소개

올해로 제10회를 맞이하는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구. SeMA 비엔날레 <미디어시티서울>)는 2018년 9월 6일(목)부터 11월 18일(일)까지 총 74일간 열린다. 서울특별시가 주최하고 서울시립미술관이 주관하는 이 행사는 2000년 “미디어\_시티 서울”이라는 명칭으로 개막한 이후 짝수 해마다 열리는 서울시의 대표적 미술행사로 자리 잡았으며, 미디어아트와 기술의 중심지로서 서울의 모습을 반영하고, 미디어의 개념을 확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예술에 주목해 왔다.

제10회 비엔날레는 기존의 1인 감독 기획 체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이하. 콜렉티브)들과 함께 다중지성 공론의 장을 만들고자 한다. 이번 비엔날레는 이 다중지성 공론의 장에 초대되는 예술·경제·환경·정치·사회·기술 등 폭넓은 분야의 전문가는 물론 일반 관객들과 함께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중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민들을 위한 열린

전시를 목표하며, 이를 통해 사회의 새로운 전환적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을 기획하고 총괄할 콜렉티브는 △김남수 무용평론가, △김장언 독립큐레이터, △임경용 더북소사이어티 대표, △장다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팀장, △최효준 서울시립미술관 관장, 그리고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이상 총 6인, 가나다순)으로 서울시립미술관의 추천 및 선정 위원회를 거쳐 선택되었고,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기획을 추진해 가고 있다. 이번 비엔날레는 불안과 의문이 팽배한 현 사회 풍토 속에서 인류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고찰하고, 동시대 예술에서 만들어지는 교류와 통섭을 기반으로 특정 소수 계층의 전유물을 벗어나 소통의 매개체로서 예술이 가진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제안하고자 한다.

## □ 6인 콜렉티브의 집단 지성

이번 비엔날레는 ‘공동감독’이라는 집단 지성을 통해 새로운 실험을 만들어보고자 한다. 공동의 주제와 키워드 그리고 차이를 통한 의미 생산의 장으로서 비엔날레를 주목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6인의 콜렉티브는 동시대 사회문화가 이야기하는 삶의 조건과 현장, 그리고 창조적인 노력들을 직접 초대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비엔날레의 장에 초대하는 ‘새로운 행위자들’은 현대미술작가에 국한되지 않고, 활동가, 기획자, 연구자들의 다양한 이야기와 실천들을 아우른다.

이번 비엔날레는 현대미술 전시로만 국한되는 비엔날레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으로서 심포지아, 캠프, 공유지, 아고라<sup>agora</sup>와 같은 확장된 지성과 실천의 형태에 주목한다. 이것은 전시를 소주제로 나눠서 분산된 기획 방식으로 보여주기를 지양하고, 전체 비엔날레의 목소리나 제스처 자체에 이질성이 교합하는 코뮤니타스를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행위자/프락시스<sup>praxis</sup>는 행위 자체가 좋고 즐거워서 행위의 과정 자체가 목적인 삶의 동태를 가리킨다. 우리는 이번 비엔날레를 만드는 과정이 ‘새로운 행위자’를 발견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보며 이 과정에서 자기실현을 추구하고 만족감을 얻기 위한 비엔날레,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술과 삶의 조건을 질문해보고자 한다.

집단 지성이 공동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벌이는 ‘토론’은 지극히 정치적이고 공적인 문제이면서 또 지극히 내밀한 개인적인 성격을 드러낸다. 따라서 이번 비엔날레는 공적이면서 사적인 것들이 교차하는 장소로서 미술관이라는 공간이 본격적인 ‘토론의 장’으로 작동하며, 전체이면서 동시에 개인의 문제를 드러낼 수 있길 바란다.

## □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주제 <좋은 삶>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흐Ernst Bloch는 '아직 아니다Noch Nicht'를 인간 희망의 원리로 제시하며 도달 불가능한 소실점과 같이 닿을 수 없는 미지의 모습이 우리를 미래로 달려나가게 만드는 희망의 원동력이라고 했다. 우리의 시선은 늘 나타나야 할, 나타날 것만 같은, 하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은 어떤 것을 향하도록 되어 있고, 이 원리는 '이미 보인다'라고 표현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현실이 되지 않았기에 그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없어 우리는 더욱더 그 보이지 않는 미래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붙들려 있게 된다. 이 틈이 바로 우리 모두가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이다. 이미 우리가 상상하는 이미지들을 포착하여 '아직 아닌' 현실이 '이미 보일' 수 있도록 전환하는 매개자로서 말이다. 이번 비엔날레는 이 전환의 매개자로서 예술의 역할을 주목한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예술'의 범주를 벗어난 학문 간 협력을 통해 동시대의 삶을 재해석하고, 다양한 개인과 집단이 제시하는 '아직은 아니지만, 이미 보이는'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대안 가치들을 함께 상상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금융 시장에서는 '뉴 노멀New Normal'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이 용어는 사회 경제의 변화상을 포착하기 위해 생겨났지만, 이는 폭넓게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중층적 차원의 위기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한때 규범적 현실처럼 여겼지만, 지금은 근본적 차원에서 현실성과 정당성이 모두 의심받고 있는 명제들이 잔뜩 쌓여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들은 기존 질서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채 이미 너무 오랜 시간이 흐른 상태로, 그 위기들은 이제 전혀 낯설지 않은 우리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미 그러한 현실에 적응하며 삶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현재 우리의 삶은 이미 도처에서 새로운 규범에 따라 흘러가고 있다. 이제는 옛 질서의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자본이나 금융 시장과 달리,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 노멀' 절반 이상은 우리 스스로가 일구어내는 것이다.

알베르 카뮈Albert Camus의 유작 <첫 번째 인간The First Man>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이미 지난 세기 후반부터 인류는 새로운 인간의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하였다. 그 새로운 인간의 모습을 향한 상상력은 인간의 신체, 성적 정체성을 필두로 한 다양한 정체성, 타인 혹은 자연과의 관계, 인간의 오감과 시공간 지각, 우주와 영원성의 형이상학적 종교적 탐색 등 무수히 다양한 방향에서 펼쳐져 왔다.

우리는 이를 16세기 르네상스 시대에 생겨난 종래 인간주의적 관점에서의 인간상이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또 다른 인간의 모습으로 탈바꿈하려는 징후로 보고자 한다. 올더스 헉슬리Aldous Huxley의 '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 라는 디스토피아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로운 인간의 모습을 적극적으로 상상하고 그려내야 한다. 허무적 상상력이 아닌 변화된 세상 속에서 '좋은 삶'을 꿈꾸고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구체적 사람을 전제로 했을 때에만 비로소 새로운 인간의 모습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좋은 삶'은 소박하지만 몇 천 년 이상의 시간, 문화 그리고 장소를 불문하고 인간이 스스로의 존재를 만들어나가는데 최고의 준거점 역할을 해왔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공간 및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 모두 다르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무수히 다양한 모습의 좋은 삶 속에는 분명히 공통분모들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는 사람이 몸과 마음에 지니고 있는 잠재적 욕구와 능력을 하나하나 일깨워 발전시키는 피어나는 삶Eudaimonia, Flourishing Life을 들 수 있으며, 두 번째로는 개인에게 좋은 삶이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토론을 바탕으로 한 탐구가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영구불변의 나침반이자 변화무쌍한 카멜레온인 '좋은 삶'에 대하여 이번 비엔날레는 지금 이 시대에 '좋은 삶'이 무엇일지 다종과 함께 탐구하고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2018년 4월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콜렉티브 일동

## □ 콜렉티브 소개

### ○ 김남수 (무용평론가)



무용평론가로 시작하여 미술계에 입문한 연구기획자이다. 2008년 백남준아트센터 학예연구원, 2011년 (재)국립극단 선임연구원을 지냈고 2013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아시아문화아카이브팀장 및 드라마투르그로 활동했다.

### ○ 김장언 (독립큐레이터)



미술이론과 문화이론을 전공했고, 월간 『아트』지 기자(2000), 대안공간 풀 큐레이터(2001-2002), 안양공공예술재단 예술팀장(2006-2007), 7회 광주비엔날레 <제안전> 큐레이터(2008), 계원예술대학 겸임교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전시기획2팀장(2014-2016) 등을 역임했다.

### ○ 임경용 (더북소사이어티 대표)



영화이론과 영화 프로듀싱을 공부했다. 2007년부터 소규모 출판사인 미디어버스를 운영하며, 2010년 서점이자 프로젝트 스페이스인 더 북 소사이어티를 통해 예술 도서 및 소규모 독립 출판물을 소개해왔다. '책사회' 총서의 책임 편집자이자 도시의 여러 자율적 움직임을 기록하는 비정기 저널 『공공도큐먼트』의 공동 편집자이기도 하다.

## ○ 장다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팀장)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 서울사무소에서 기후에너지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국내에서 경제학과 국제정치학을, 유럽에서 환경 및 에너지 정책을 공부하였다. 정부, 유엔, 싱크탱크에서 일한 뒤 그린피스에 합류하여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에너지 전환 캠페인을 이끌어오고 있다.

## ○ 최효준 (서울시립미술관 관장)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뒤,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MBA)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서울대학교에서 미술사 석사, 원광대학교 순수미술학 박사를 취득하였다. 2017년에 서울시립미술관 관장으로 부임하였다.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술관 관장(2011-2015),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미술관장(2009-2011)을 역임하였다.

## ○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외교학과 대학원을 거쳐 토론토 요크 대학교에서 정치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역서로는 칼 폴라니, 『거대한 전환』, 반 파레이스 등 『기본소득』, 스티드먼 존스 『칼 마르크스 전기』 등이 있고, 저서로는 『비그포르스, 복지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가 있다. 현재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소장과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연구위원장을 맡고 있다.

## □ 주요 참여자 소개

### ○ 그린피스 동아시아 서울사무소(Greenpeace East Asia Seoul Office)



1971년 설립된 독립적인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지난 46년간 시민들과 함께  
평화적이면서 예술적이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벌여왔다.

© Tom Jefferson / Greenpeace

### ● 프로젝트 사례



Ludovico Einaudi, *Elegy for the Arctic*, Video, 3minutes 13seconds, 2016 © Pedro Armestre / Greenpeace

2016년 6월 이탈리아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에이나우디가 북극 빙하 앞에서 ‘북극을 위한 애가’를 그의 그랜드 피아노로 연주하고 있는 장면이다. 기후변화를 막고 북극을 보호하기 위해 그린피스가 에이나우디를 그린피스 배에 태워 북극의 현장에서 연주할 수 있도록 했다.

###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출품 프로젝트(안)

지구라는 유한한 생태계에서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을 담보한 ‘좋은 삶’의 방식들을 상상하고, 다양한 예술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 온 ‘행동하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여주자 한다.

○ 노경애 (1971년, 한국 출생)



네덜란드의 EDDC(European Dance Development Centre)에서 안무를 전공하고, 2005년 유럽 안무가들과 함께 vzwCABRA를 창단하여 현재까지 협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 2010년 서울국제공연예술제 댄스 컬렉션을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2012년 광주 아시아예술 극장 국제공모, 서울문화재단 유망예술육성지원사업(NArT) 등에 선정된 바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불특정한 언어>(2011), <Two Aspect>(2012), <'Rita>(2012-2015), <MARS>(2013), <Elbow Mountain Tooth>(2014), <줄자-/정류장>(2015), <더하기 놓기+,>(2016-2017) 등이 있다.

● 프로젝트 사례



노경애, <더하기 놓기+,>, 퍼포먼스, 2016.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 공연)

<더하기 놓기+,>는 하나에 다른 하나를 더하거나 놓는 것을 통해 A와 B가 가지는 본래의 고유성을 다르게 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새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실험한다. 본 퍼포먼스는 한자의 '회의문자(會意文字)'원리와 일본의 시 '하이쿠'의 조합 기법에 영감을 받아 다양한 결합의 방법을 글자, 이미지, 사물, 소리, 움직임 등을 통해 확장하고 실험한다.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출품 프로젝트(안)

<움직이는 표준>은 종착지를 알 수 없는 새로운 문명의 길을 설계하는 질서와 개념 체계에 대한 탐구에서 시작한다. '표준'은 움직임으로써 그 질서와 개념 체계를 추인하지만, 정작 표준 이외의 움직임은 어떻게 되는가. 이번 프로젝트는 이렇게 움직여지는 축, 움직여지는 규칙, 나아가 움직여지는 표준에 대한 작업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노경애는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그녀가 바라보는 이 시대를 향한 표준의 움직임에 대해 새로운 안무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 디스플레이 디스트리뷰트 (2013년 활동 시작, 홍콩)



홍콩을 기반으로 유통 및 연구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는 콜렉티브로, 사회적 풍경을 빠르게 변화시키는 사회의 상호작용을 탐구하고 협업 및 네트워크 형식의 생산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실험한다. 2017년 리스본에 위치한 가비네떼 (Gabinete)에서 열린 <가비네떼 데 모다 (Gabinete de Moda)> 프로젝트 및 베를린에서 열린 <페스티벌 오브 퓨처 나우스 2017 (Festival of Future Nows 2017)>에 참여했다. (source:

<http://displaydistribute.tumblr.com/ABOUT>)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출판 프로젝트(안)



리저브드 포 디스플레이 디스트리뷰트 (Reserved for Display distribute), 기간 설치작업, 시장 가판대, 2017 ©Display Distribute

<카탈로그 #3 (CATALOGUE』 No. 03)>은 아시아의 예술가와 예술 기관을 중심으로 생산되는 출판물을 유통하기 위한 카탈로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독자와 생산자 간의 네트워크와 지식 생산의 다양한 실천들을 통해 얻은 여러 이슈에 대한 리서치 결과물을 담고 있다. 이번 비엔날레에서 만들어질 <카탈로그 #3>은 전시장에서 2~3주간의 독서 활동의 결과물로 구성될 예정이다. 초청된 전문 편집자들은 비엔날레와 관련된 몇 가지 이슈에 대해 글을 읽고 토론하면서 카탈로그를 구성하게 된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텍스트 자료, 토론 과정들이 수합되어 책자로 만들어질 것이다.

## ○ 모노스콥 (두산 바록, 1979, 암스테르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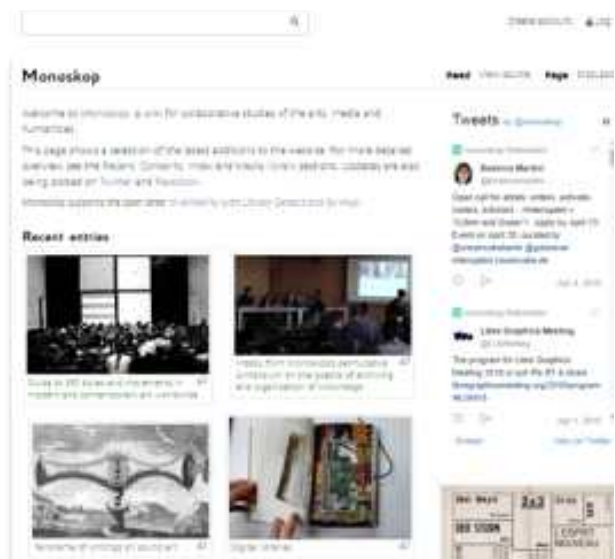
예술, 미디어, 인문학에 대한 협력적 연구를 위한 플랫폼이다. 아방가르드 예술, 미디어 아트, 인문, 철학 등과 관련된 포괄적인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공유한다. 2015년 <이데오그래피 오브 놀리지 (Ideographies of Knowledge)>라는 지식의 문서화와 분류에 관한 심포지엄을 기획하고, 2017년 뉴욕 사이버네틱스 컨퍼런스 (Cybernetics Conference)에 참여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을 유지하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두산 바록 (Dušan Barok)은 모노스콥의 창립 에디터로, 현재 암스테르담 대학교 (the University of Amsterdam)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시간을 기반으로 한 예술의 문서화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슬로바키아의 브라티슬라바에서 태어났으며, 브라티슬라바 경제대학교(the University of Economics, Bratislava)에서 정보기술학을 전공하였다. 그 후 네덜란드 로테르담에 있는 피에트 츠바르트 인스티튜트(the Piet Zwart Institute)에서 미디어 네트워크 석사과정을 공부했다. (source; <http://www.sgt.gr/eng/SPG2096/>)

## ● &lt;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gt; 출품 프로젝트(안)

모노스콥 웹사이트

이번 모노스콥의 프로젝트는 2015년 벨기에 문다니움 박물관에서 기획했던 지식의 문서화와 분류에 관한 내용을 다룬 <이데오그래피 오브 놀리지> 심포지엄에서 한 단계 발전된 형태로 진행된다. 이번 비엔날레에서는 아시아에서 주로 활동하는 작가나 기획자들에게 지식을 조직하거나 접근하는 다양한 관점을 보여주는 사물을 추천받고 이를 전시장에서 보여주게 된다. 이 ‘사물의 도서관’은 관람객에게 현재 디지털 네트워크 안에서 지식에 접근하는 다양한 관점을 환기시킬 수 있을 것이다.



○ 민세희 (1975년, 한국 출생)



데이터 시각화 아티스트이다. 뮤직클럽의 성비율을 보여주는 사용자 데이터 시각화에서부터 서울시의 예산 사용 데이터를 보여주는 공공 정보 시각화까지 민세희의 작업은 데이터를 통해 우리 자신과 사회를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지식 공유 데이터 시각화, 에너지 소모량에 따라 변하는 건축물, 그리고 네트워킹 행동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데이터를 통해 풀어내고 있으며 최근 데이터 학습을 통해 우리를 반추하고 있는 인공지능 환경을 시각화함으로써 기계가 인식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민세희의 작업은 TED global2012, TED

2011, Lift asia, CNN 아시아, 엘리스온, 디자인 정글, MOMA 블로그 등에서 소개되었으며 시립대, 한양대, 중앙대, 한예종, 연세대, 서울대 융합기술대학원 등에서 데이터 시각화 강의를 하고 있다. 그녀는 뉴욕 프랫 인스티튜트에서 인터랙티브 미디어로 석사를 마쳤으며 MIT 센서블 시티 랩 도시정보 디자인 연구원을 거쳐 현재 한국인 최초 테드 펠로우(2011년)로 활동, 2012년/2013년 시니어 펠로우로 선정 되었다.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출품 프로젝트(안)



\* 참여 예정 작가들 기존 작품 이미지 조합

<모두의 인공지능(A.I. entirely on us)> 프로젝트 (2018, 신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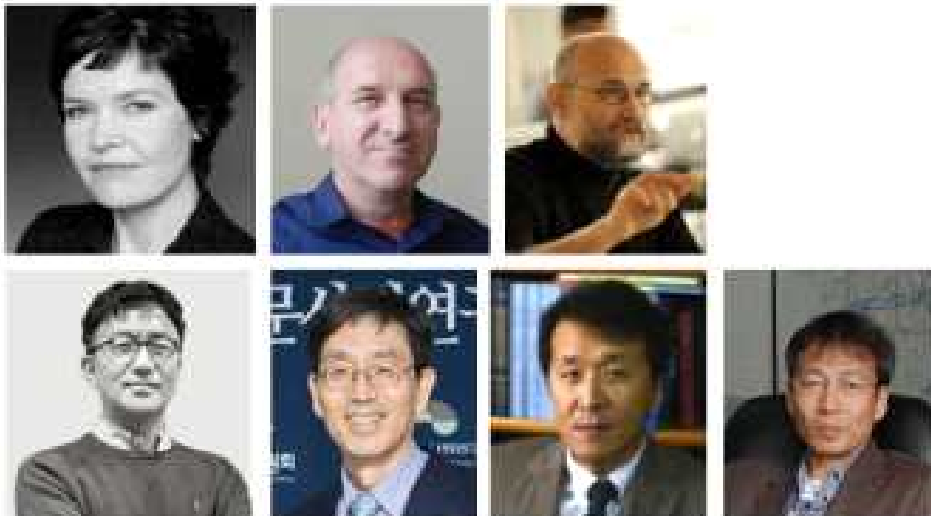
인공지능은 우리의 삶과 함께한다. 영화를 추천하고, 대화를 나누며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기계 환경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한다. 이 기계 환경은 우리 생활 곳곳에 영향을 주기도, 받기도, 그렇게 드러나기도, 가려지기도 한다. 인공지능은 이렇게 '모두의' 생활 속,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이 기술 환경을 마주하면서 생활적 편리함에 앞서서 스스로에게 보다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고 있다. 우리는 누구인지, 인간은 무엇인지, 지금의 기술사회 속 불균형적인 사고는 무엇인지를. 2018년 미디어시티 비엔날레에는 인공지능이라는 익숙해져 가고 있는 우리의 기계 환경으로 인해서 인지하기 시작한 변화와 생각을 드러내며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모두의 인공지능'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모두는' 도달할 수 없는 이상적인 지점이며 그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불완전한 조건이다. 그래서 '모두의 인공지능'은 이 기술 환경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함을, 그 덕분에 드러나게 된 우리의 문제들, 새롭게 마주하게 되는 가치들, 그리고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견고하지 않은 생활을 말하고자 한다. '뉴 노멀'이란 이렇게 불완전하고 덜 다듬어진 기술 환경과 함께 하는 모두의 삶이다.

○ 박형준 (1969년, 한국 출생)



서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서섹스 대학교에서 사회 정치사상 석사 과정을 마친 후, 캐나다 요크 대학교에서 국제 정치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과 진보 금융 네트워크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 현재는 글로벌 정치 경제 연구소의 부소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재벌, 한국을 지배하는 초국적 자본』이 있고, 옮긴 책으로는 『경제성장과 사회보장 사이에서』, 『GDP는 틀렸다』, 『스티글리츠 보고서』, 『불경한 삼위일체』(공역)가 있다.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출판 프로젝트(안)



(윗줄 왼쪽부터)케이트 라워스(Kate Raworth), 미셸 보웬스(Michel Bauwens), 요하이 벤클러(Yochai Benkler)  
(아랫줄 왼쪽부터) 강정수, 성경룡, 장덕진, 최정규

<호모 이코노미쿠스의 진화: 인류세(Anthropocene)의 도래와 공유 인간의 부활>이라는 큰 주제 아래 강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한다. 3차에 걸친 포럼으로 구성되며, 각 포럼은 1박 2일에 걸쳐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거대한 전환의 시대를 맞아 이전 산업시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경제생활의 원리와 주체를 찾아보기 위한 핵심 주제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는 성장주의가 가져온 생태적, 자연적, 사회적 위기의 심각성을 고찰하고, 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 만들어진 이기적 존재로서의 호모-이코노미쿠스적 인간의 한계를 파악하여 4차 산업혁명이라는 21세기 새로운 물질적 조건에 적합한 새로운 인간 유형으로의 진화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 배남우 (1977년, 한국 출생)



미국 로드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에서 디지털+미디어로 석사학위 취득 후(2013), 경기문화재단 경기창작센터 (2014-2015)에서 레지던시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 그리고 국제교류 매니저, 안양문화예술재단(2016-2017)에서 5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 5) 큐레이토리얼 팀장, 10회 청주공예비엔날레 교육 팀장(2017)으로 일했고, 2018년 현재 경기문화재단 경기상상캠퍼스 플랫폼 1986 프로젝트 매니저로 재직 중이다. 예술경영지원센터 프로젝트비아 연구원으로

선발되어, '큐레이팅 다시 생각하기'(2015), 'e-Museum: 네트워크로 미술관 감각하기'(2016) 등의 리서치를 진행했고 결과발표회인 비아살롱에 참여했다. 2017년에는 코리아나미술관의 리서치 프로젝트 \*c\_lab 1.0 <구글, 알고리즘, 에러, 그리고 현대예술>를 통해 가상의 현실에 구축된 모순을 통해 하이퍼-리얼한 재현이 변탈되는 순간에 주목했다.

● 프로젝트 사례



Elisa Giardina Papa, *Brush Stroke*, 2012  
Sculpture, digital print on laser cut PVC  
Dimensions variable



Sterling Crispin, *Data-Masks(Series)*, 2013-15  
3D Printed Nylon, Mirror, Facial Recognition and  
Detection Algorithms, Genetic algorithms, 18x26 in each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출품 프로젝트(안)

***Future Shop \_ A Pop-up Store, 2018*** (Elisa Giardina Papa와 10여팀 예정)

<Future Shop>은 인공지능과 네트워크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초연결사회에 존재할 법한 (상상된) 팝업스토어 프로젝트며, 시스템 교란 프로젝트다. 개인이 순수하게 개인으로 남을 수 있는 것,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내 컴퓨터로 무엇을 보고 저장했는지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것, 개인이 개인의 익명성을 지키며 덩어리처럼 움직이는 단체의 물결에서 홀로 자유로운 개인으로 존재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그런 삶이 그리 가깝지도 않고 그렇다고 멀지도 않은 미래의 좋은 삶이라 생각하며,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상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팝업스토어를 상상해 보는 타임머신 같은 공간이다.



- 보물섬 콜렉티브 - 김동찬(1982), 민성홍(1972), 송민규(1981), 최진요(1982), 하석준(1971), 황경현(1990)



보물섬 콜렉티브는 6인의 작가로 구성된 임시적 예술 공동체이다. 콜렉티브의 구성원이자 개별적 주체인 작가들은 ‘예술로 살아가기’와 ‘황무지에서 보물찾기’라는 과제를 가지고 맨 처음 2016년 <보물섬>전에서 만났다. <보물섬>전은 작가들이 사회화되는 과정과 3단계의 전시 과정을 통해 <보물섬이 아니다>로 귀결되었다.

● 프로젝트 사례



김동찬, 민성홍, 송민규, 최진요, 하석준, 황경현, <보물섬>, 2016 (경기창작센터 전시전경)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출판 프로젝트(안)

<니에트! 니에트! 니에트!>는 6인의 건맨 같은 작가들이 치열한 난전과 상호 압력 하에서 기이하게 진행해낸 <보물섬>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현시점에 ‘보물섬 콜렉티브’의 구성원 각자가 찾고 있거나 잃어버린 ‘보물’에 대하여 기록·보고하는 프로젝트이다. ‘보물섬 콜렉티브’는 개별자로서 작가의 생존게임이나 집단적 에콜에 선을 달는 방식이 아닌, 작가(들)이 관계의 합성[synthesis], 관계의 경합[conflict]으로 새로운 실행 주체의 과정을 진행한다는 것에 특징이 있다.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2012년 활동 시작, 서울)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이하. 청네)는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의 독립단체이다. 자유와 평등, 사회정의, 사회적 연대가 실현되는 사회를 위한 청년들의 역할을 고민한다. 또한 청년 당사자들이 겪고 있는 사회문제(교육, 일자리, 주거, 의료, 노후, 사회안전망 등)를 청년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해결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청네는 세대 내 연대와 다른 세대와의 세대 간 적극적 연대를 통해 한국 사회에 잠재된 많은 불안 요소들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미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도래할 미래 사회의 정치, 경제, 분배 체계의 급격한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에 걸맞은 사회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출품 프로젝트(안)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청네는 ‘독립’이라는 큰 주제 아래 ‘부모, 윤리적 규범 및 문화, 노동으로부터의 독립’이라는 세부 주제를 이번 비엔날레에서 다룬다. 기존 사회 과학 연구에 입각한 접근법보다는 리서치 과정, 주제 토론에 대한 청년층의 진정성에 중점을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한다. 사전 진행 리서치를 바탕으로 비엔날레 기간 중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될 예정이고, 이 리서치는 크게 2가지 갈래로 나뉜다. 첫째는 토론, 무중력지대 양천 플랫폼 활용하여 주제의 ‘목표와 가치’에 대한 리서치를 진행하는 것이고, 둘째는 청네 기획팀 주도하에 통계적 자료 조사를 진행하여 독립에 관련한 ‘시간과 돈’에 관해 토론해 나가며 자체적인 의견의 수합을 하는 것이다.

○ 춤추는 허리 (2003년 활동 시작)



2003년 6월 9일에 창단한 장애여성극단 '춤추는 허리'는 장애 여성의 삶과 현실을 표현하기 위해 무대 안팎을 넘나들며 세상과 소통하는 공연을 만들어 낸다. 장애여성 일상의 경험을 몸짓과 언어로 표현한 공연을 통해 그들의 삶과 인권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다.

● 프로젝트 사례



2017 정기공연 <불만폭주 라디오> 3막 '나는 예술가 입니까',  
©춤추는 허리

장애 여성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차별과 갈등을 담아서 지난 5년간 기획공연으로 진행해 온 '거북이 라디오'를 새롭게 구성한 공연으로, 사진은 사회적 평가로 인해 생겨나는 10년 차 장애인 극단 활동가의 심정을 표현한 장면이다.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출품 프로젝트(안)

예술과 예술인에 대해 사회가 상상했던 정상성을 질문하며, 동정이 아닌 연대의 공명을 이루는 과정을 보여주하고자 한다. 캔버스 작업, 즉흥 춤과 연기 등을 통해 인간의 조건을 구분해 왔던 근대적 시간과 결별하는 움직임을 표현할 예정이다.



○ 크리티컬 아트 앙상블 (1987년 활동 시작)



1987년에 설립된 CAE는 컴퓨터 그래픽, 웹 디자인, 인간 두뇌, 영화/영상, 사진, 텍스트 아트, 북아트, 그리고 퍼포먼스를 포함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작가들이 모인 집단이다. CAE는 미술, 기술, 정치적 활동, 그리고 비판 이론 간의 교차점을 탐구하는 데 전념한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CAE는 정보통신기술과 생명공학, 그리고 생태계를 둘러싼 문제를 살펴보는 작품을 생산하고 전시했다.

● 프로젝트 사례



Critical Art Ensemble and YoHa, *Graveyard of Lost Species*, Leigh-On-Sea, 2016.  
Commissioned by Arts Catalyst. ©Critical Art Ensemble

*Graveyard of Lost Species*는 아츠 카탈리스트가 의뢰한 작품으로, YoHa와 크리티컬 아트 앙상블이 만든 임시 기념비이다. 이는 템스 강어귀에 한때 무성했지만 부재하는 야생 동식물, 해양 생물, 인간, 생계, 낚시 방법, 이정표, 신화, 그리고 지역 방언을 기록하고 인지하기 위한 작업이다.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 출품 프로젝트(안)

최근까지 관심을 갖고 연구해온 시체정치(necropolitics)에 관한 프로젝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는 전쟁이나 재해 시, 치료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부상자를 분류하는 시스템(triage)의 법칙에 따라 생태계를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이다. 프로젝트는 서울에 있는 하천 수질의 오염정도를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며, 조사된 것을 바탕으로 현재의 형태로 수자원을 보호하고 치료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 □ 1차 참여자 리스트 (총 61명/팀)

| 연번 | 이름(국문)                                         | 이름(영문)                                                                                                               | 국적 |
|----|------------------------------------------------|----------------------------------------------------------------------------------------------------------------------|----|
| 1  | 고연옥, 잣프로젝트                                     | Yeon Ock Ko, JAT Project                                                                                             | 한국 |
| 2  | 구민자                                            | Minja Gu                                                                                                             | 한국 |
| 3  | 김월식                                            | Wol Sik Kim                                                                                                          | 한국 |
| 4  | 김현탁                                            | Hyun Tak Kim                                                                                                         | 한국 |
| 5  | 노경애                                            | Kyung Ae RO                                                                                                          | 한국 |
| 6  | 보물섬 콜렉티브(김동찬, 민성<br>홍, 송민규, 최진요, 하석준, 황<br>경현) | Treasure island Collective (Dongchan<br>Kim, Seonghong Min, Mingyu Song, Jinyo<br>Choi, Seokjun HA, Gyunghyun Hwang) | 한국 |
| 7  | 안은미                                            | Eun Me Ahn                                                                                                           | 한국 |
| 8  | 은정태                                            | Jungtae Eun                                                                                                          | 한국 |
| 9  | 이그니토                                           | Ignito                                                                                                               | 한국 |
| 10 | 이소영                                            | Soyung Lee                                                                                                           | 한국 |
| 11 | 정기현                                            | Ki-Hyun Jung                                                                                                         | 한국 |
| 12 | 허윤경                                            | Yunkyung Hur                                                                                                         | 한국 |
| 13 | 동대문옥상낙원DRP                                     | Dongdaemun Rooftop Paradise                                                                                          | 한국 |
| 14 | 씨워드                                            | SEAWEED                                                                                                              | 한국 |
| 15 | 팩토리 콜렉티브                                       | FACTORY Collective                                                                                                   | 한국 |
| 16 | 미팅룸                                            | meetingroom                                                                                                          | 한국 |
| 17 | 춤추는 허리                                         | Disabled Women's Theatre Group<br><Dancing Waist>                                                                    | 한국 |
| 18 | 신도시                                            | Seendosi                                                                                                             | 한국 |
| 19 | 크리티컬 아트 앙상블                                    | Critical Art Ensemble                                                                                                | 미국 |
| 20 | 구부요밴드                                          | guBuyo Band                                                                                                          | 한국 |
| 21 | 권병준                                            | ByungJun Kwon                                                                                                        | 한국 |
| 22 | 정재철                                            | Jeoung Jae Choul                                                                                                     | 한국 |
| 23 | 디르크 플라이쉬만                                      | Dirk Fleischmann                                                                                                     | 독일 |
| 24 | 류한길                                            | Hankil Ryu                                                                                                           | 한국 |
| 25 | 리슨투더시티                                         | Listen to the City                                                                                                   | 한국 |
| 26 | 안건형                                            | Kearn-Hyung Ahn                                                                                                      | 한국 |
| 27 | 윤원화                                            | Wonhwa Yoon                                                                                                          | 한국 |

|    |               |                                   |         |
|----|---------------|-----------------------------------|---------|
| 28 | 윤지원           | Jeewon Yoon                       | 한국      |
| 29 | 인민의 아카이브      | Archive of the People             | 홍콩      |
| 30 | 최하늘           | Haneyl Choi                       | 한국      |
| 31 | 디스플레이 디스트리뷰트  | Display Distribute                | 홍콩      |
| 32 | 모노스콥 (두산 바록)  | Monoskop (Dušan Barok)            | 슬로바키아   |
| 33 | 그린피스동아시아서울사무소 | Greenpeace East Asia Seoul Office | 한국      |
| 34 | 김상돈           | Sangdon Kim                       | 한국      |
| 35 | 믹스라이스         | Mixrice                           | 한국      |
| 36 | 양아치           | Yangachi                          | 한국      |
| 37 | 박형준           | Hyengjoon Park                    | 한국      |
| 38 | 케이트 라웁스       | Kate Raworth                      | 영국      |
| 39 | 미셸 보웬스        | Michel Bauwens                    | 벨기에     |
| 40 | 요하이 벤클러       | Yochai Benkler                    | 이스라엘-미국 |
| 41 | 강정수           | Jeong-Soo Kang                    | 한국      |
| 42 | 성경륜           | Kyoung-ryung Seong                | 한국      |
| 43 | 장덕진           | Dukjin Chang                      | 한국      |
| 44 | 최정규           | Jung-Kyoo Choi                    | 한국      |
| 45 | 000간          | Zero Space                        | 한국      |
| 46 | 서울시50플러스재단    | Seoul 50 Plus Foundation          | 한국      |
| 47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 Welfare State Youth Network(WSYN) | 한국      |
| 48 | 민세희           | Sey Min                           | 한국      |
| 49 | 양민하           | Minha Yang                        | 한국      |
| 50 | 신승백김용훈        | Shinseungback Kimyonghun          | 한국      |
| 51 | 최승준           | Seung Joon Choi                   | 한국      |
| 52 | 로스 굿윈, 오스카 샤프 | Ross Goodwin, Oscar Sharp         | 미국      |
| 53 | 진 코건          | Gene Kogan                        | 독일      |
| 54 | 마리오 클링게만      | Mario Klingemann                  | 독일      |
| 55 | 마이크 타이카       | Mike Tyka                         | 영국      |
| 56 | 데이빗 하         | David Ha                          | 일본      |
| 57 | 사뮈엘 위니거       | Samim A. Winiger                  | 스위스     |
| 58 | 배남우           | Namwoo Bae                        | 한국      |
| 59 | 엘리사 지아디나 파파   | Elisa Giardina Papa               | 이탈리아    |
| 60 | 스털링 크리스핀      | Sterling Crispin                  | 미국      |
| 61 | 에드버스터즈        | Adbusters                         | 캐나다     |

## □ 제10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경과 <배움·나눔의 장>

<배움·나눔의 장>은 2017년 11월 21일부터 12월 7일까지 프리비엔날레 기간 중 총 6일간 이루어진 17개의 강연 시리즈이다. 동시대 예술을 중심으로 경제, 정치, 환경, 사회 등 영역의 교류와 통섭을 모색하고 향후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주제를 도출하고자 사전 행사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경제 성장의 추억, 여성주의에서의 정치와 윤리, 액티비즘과 예술, 생태 및 생물과 예술, 21세기 미래형 매개공간 등 폭넓은 학문 간 강연을 통해 현 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을 조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현재의 시대적 변화 속 비엔날레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방향성을 짚어볼 수 있는 행사였다.

### 2017년 11월 21일(화)

홍기빈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장) “경제 성장의 추억: 권력의 집중과 인간/자연의 트라우마”  
김규향 (칼럼니스트) “현대미술의 ‘어려움’에 대하여”  
서진석 (백남준아트센터 관장) “21세기 미래형 매개공간: 백남준의 예술세계를 통하여”

### 2017년 11월 22일(수)

심상용(동덕여자대학교 큐레이터학과 교수) “2020년대가 요구하는 시대정신: ‘위대한 예술 (Great Art)’의 환상에서 깨어나기”  
양효실 (미학자) “여성주의에서 정치와 윤리”  
신보슬 (토탈미술관 책임큐레이터) “미술관 플랫폼의 확장: 토탈미술관의 아웃리치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 2017년 11월 24일(금)

이소요 (작가/생물과 문화 대표) “생물을 다루는 예술가들”  
장다울 (그린피스 기후에너지팀장) “예술은 액티비즘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김포도 (작가) “생태, 사는 형태: 둔촌주공아파트 동네고양이의 생태적 이주 프로젝트”

### 2017년 12월 1일(금)

황경하 (현장음악가) “음악가의 방식으로 싸우는 법”  
심소미 (독립 큐레이터) “미시적 도시 개입을 통해 보는 작동의 모순”  
노명우 (아주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사회학적 상상력과 변화”

### 2017년 12월 6일(수)

박지형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도시와 물: 흐름과 이음에 대한 생태학적 단상”  
신정훈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학술연구교수) “1960년대 말 한국 미술과 건축에서의 ‘환경’”

강운주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메가트렌드’, 생활예술!”

2017년 12월 7일(목)

김남수 (무용평론가) “태평양의 커튼”

김지하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필름 앤 비디오 아카이브 책임연구원) “아시아문화전당의 필름 앤 비디오 연구 및 아카이브”

스미토모 후미히코 (아트 마에바시 디렉터) “아트 마에바시 미술 실천에서의 정체성, 과정, 규모”

제이슨 웨이트 (독립 큐레이터) “바람을 따라가지 마시오: 후쿠시마 창사에 맞서는 집단성”

**연락처****서울시립미술관**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사무실

**전시과 큐레이터**

전소록 02-2124-8906, whitegreen@seoul.go.kr

권진 02-2124-8939, nakwonjin@seoul.go.kr

윤민화 02-2424-8973, yunminhwa@seoul.go.kr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2018****어시스턴트 큐레이터**

김시습 02-2124-8898, hagnosis@seoulbiennale.com

배예임 02-2124-8897, abae@seoulbiennale.com

정선희 02-2124-8896, sunchung@seoulbiennale.com

조우리 02-2124-8979, wcho@seoulbiennale.com

**작품이미지****다운로드 방법**서울시 웹하드시스템 접속 (<http://sema.webhard.co.kr>)

아이디: semapress

비밀번호: sema

로그인 후 이미지 다운로드